

콘크리트와 사진 사이

여러 응모작 중 김현정의 사진이 눈에 띈 것은 피사체의 물성에 대한 탐구와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연구가 서로 상응하며 하나로 수렴했기 때문이다. <무용지물>(2016-) 연작은 담벼락이나 주차장의 표지석, 계단, 벽과 벽이 만나는 모퉁이 등 주거 공간 주변의 사소하고 흔한 대상을 섬세한 눈으로 포착한 작업이다.

집에 곰팡이가 슬기 시작한 경험을 계기로, 작가는 사물도 생물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를 겪으며 모종의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물의 신호는 시간이 지나며 세월이 스며든 흔적으로 나타났고, 작가는 이를 응시하기 시작한다. 작업의 출발이 집이었기에 포착한 대상은 자연스럽게 일상의 소외된 주변부가 다수였고, 그것들은 대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콘크리트와 사진의 연결은 이렇게 시작된다. 콘크리트의 흔적을 세심히 담던 작가는 문득 콘크리트와 사진이 닮았음을 인지하게 된다. 유동체로 시작해 고체로 변하는 콘크리트는 타설된 후 마르는 시간을 요한다. 이 시간동안 물질에 가해진 외부의 개입은 고스란히 재료 내부에 각인된다. 작가는 콘크리트의 이러한 속성에서 노출시간이 긴 사진을 떠올렸다. 대상의 흔적을 담아내는 콘크리트의 특징은 피사체를 전사하는 사진의 지표적 속성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재료가 굳는 일정 시간을 요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대상의 각인에 대개 찰나의 시간을 요하는 사진과 달리 지속의 시간성을 가진다. 하지만 장노출 사진처럼 연속적 시간을 요하는 사진이라면 콘크리트의 특징에 훨씬 가까울 것이다.

시간의 흔적이 새겨진 콘크리트를 찍은 사진은 형식과 내용이 합치되는 명료한 쾌를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대상은 기능을 지닌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라 물질과 표면으로 다뤄진다. 벽면이라는 표면과 사진이라는 표면 위에서 물질과 이미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형식 실험이라고 할까. 이때 콘크리트 벽이 대부분 페인트가 칠해진 표면이라는 점은 회화적이라는 작업의 인상과 묘한 조응을 이룬다. 콘크리트가 갈라진 금을 따라 페인트가 들떠 색감이 달라지거나 갈라진 곳을 메우려고 덧칠을 해 색이 진해진 벽면의 무늬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추상 회화를 연상케 한다. 비바람에 바래어 열린 중간 톤의 색들이 미묘하게 변주되는 사진의 담백한 질감은 거의 보정을 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사진임에도 마치 물감이 얇게 덧발려 은은하게 계조가 생긴 캔버스 표면처럼 보인다.

물질과 매체를 잇는 실험은 최근 열린 두 개인전에서 심화된다. <<공구리를 위한 준비운동>>(2017)은 사진 매체를 넘어 다른 표면들로 물성 실험을 확장시킨다. 여기서 콘크리트는 캔버스 위에 실제로 발리기도 하고, 사진으로 찍히기도 하며, 종이 위에 프로타주되기도 한다.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매체에 따른 물성 차이는 훨씬 명확해진다. 캔버스 위에 발린 콘크리트는 중량을 지닌 물질 그 자체지만, 사진이라는 장치를 거치면 양감이 빠지면서 표면 질감이 두드러진다. 콘크리트 표면을 프로타주한 후 스캔과 포토샵을 거친 프린트가 실제보다 훨씬 거칠어지는 것 또한 매체를 거치며 생긴 변형(선택과 강조에 따른 입자감의 강화)의 결과다.

<<공구리 프리퀀>>(2018)에서는 <무용지물>에서 출발한 사진과 콘크리트의 연결을 조금 더 진척시킨다. 여기서 작가는 콘크리트를 깔 때 적정 농도를 찾는 과정을 사진에서 적정 노출을 찾는 그레이 스케일과 접목시킨다. 그레이 스케일에 따라 명도를 달리하며 인화된 사진, 그레이 카드 자체를 찍은 사진, 사진 한 장이 그레이에 대한 자기 반영적 모색이기도 하다. 그 진지한 모색이 길게 넓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